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이용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엄광진*, 맹혜영, 김정유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Narrative Inquiry on Experience of Mentally Ill Patients in Psychiatric Day Hospital Care

Kwang-Jin Eom*, Hae-Young Maeng, Jung-Yoo Kim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정신과 낮병원 이용 환자들의 경험을 연구하였다. 연구자들은 낮병원 이용 경험이 있는 정신과 환자 4명을 대상으로 3회 이상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낮병원 퇴원 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추가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낮병원 이용 경험의 의미는 '세상과 끊어진 줄을 다시 묶다.', '힘이 되는 마음의 안식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다.' 세 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신과 낮병원 이용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과 환자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다양한 지지체계 활성화 노력,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의 정책적 제안을 한다.

주제어 : 내러티브 연구, 정신과 환자, 낮병원, 사회적응, 질적 연구

Abstract This narrative inquiry examines the experience of mentally ill patients who used the psychiatric day hospital care service. The researchers in this inquir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hree times with four patients who used day hospital care and data was also collected from additional conversations when patients were on outpatient visit after being discharged from the day hospital. The inquiry uses the narrative research method to describe the experience of using day hospital services as follows; a springboard to reconnect to the world, a place to be empowered and set the mind at ease, and a guide to direction in life. This inquiry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s with the in-depth stories of the mentally ill patients who experienced the day hospital c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quiry, the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are made; institutional support for reducing social isolation of psychiatric patients, activation of various support systems and further program development.

Key Words : Narrative inquiry, Mentally ill patients, Day hospital, Social adjustment,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고 시행된 이후 정신보건 현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5년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건강

강복지법으로 20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다[1].

개정된 법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강화되고 강제입원 기준이 높아져 장기입원을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1,2].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비자의 입원은 점차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3]. 정신건강복

*Corresponding Author : Kwang-Jin Eom(suntime85@naver.com)

Received January 2, 2020

Accepted April 20, 2020

Revised March 31, 2020

Published April 28, 2020

지법으로 인한 입원 절차 강화와 자의 입원의 증가는 정신과 병상이 줄어들어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2014년 전국에 8만3711개 이었던 병상은 2018년도 7만 9257개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4].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입원 기준을 높여 병상수를 줄여나가는 탈원화는 이루어졌지만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 시설은 부족하다[5]. 미국과 영국은 정신과 환자의 탈원화 과정에서 입원병상을 줄여나가며 정신과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제약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며 진행되었으나[6] 우리나라에서는 탈 시설화 경향과 인식은 크게 높지 않다[7]. 최근 일어난 진주 아파트 방화 사건은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범죄로 부각되고 보도가 이루어져[8]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을 높이기도 했다. 정신과 환자들의 사회적 낙인과 혐오는 지역사회에 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치료시설과 이용시설 설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9]. 퇴원 후 이용할 시설의 부족과 이용 시설의 질 저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귀 보다 장기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10] 정신과 환자들의 사회복귀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정신과 환자들은 이용시설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와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 당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환자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감이 높아진다[11,12]. 정신과 환자들의 장기입원 요인에 있어 환자와 보호자와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3] 퇴원 후 이용시설의 이용은 정신과 환자들의 사회재활과 더불어 환자의 가족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정신과 환자들의 이용시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14]나 조직 관리에 관한 연구와[15] 같이 이용 당사자들인 정신과 환자들의 이야기보다 센터 운영과 종사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신과 낮병원에 관한 연구도 낮병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과 환자들이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이 증진된다는 효과성을 분석한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와[16,17] 낮병원 이용이 정신과 환자들의 치료충실도를 높인다는[18] 낮병원 이용을 통한 정신과 환자들의 이용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낮병원을 이용한 정신과 환자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경험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정신과 낮병원 환자들의 이용경험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과 낮병원 환자들이 경험한 낮병원 이용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이들의 낮병원 이용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를 통해서 정신과 환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론

2.1 내러티브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신과 환자들의 낮병원 이용 경험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듣기 위해서 Clandinin&Conelly의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했다[19]. 내러티브는 경험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경험을 표현하기에 좋은 연구 방법으로 경험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과정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연구방법이다[19,20]. 내러티브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로 깊게 들어가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story tell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storytelling)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낸다[20]. 내러티브 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참여자의 경험을 탐색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연구를 할 수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낮병원을 이용하는 정신과 환자들의 낮병원 이용 전 경험했던 그들의 이야기와 낮병원 이용 과정을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고 그것이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탐구하고 기록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낮병원 이용 경험을 통해 정신과 환자들이 이용과정 속에서 겪었던 변화의 과정을 당사자의 이야기로 깊게 듣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낮병원 이용 대상 환자 중에 연구에 적합한 인원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지역 A병원을 이용 중인 환자로, 남자 3명, 여성 1명 총4명이다. 참여자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선정기준을 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신질환으로 인해 입원 병동에 입원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둘째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겪거나 고립을 경험하였고, 셋째 낮병원 이용과정

을 통해 자신의 변화과정과 느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환청, 망상 혹은 심한 기분변화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이야기의 신뢰성이 보장되며, 연구자들과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seudonym	gender	age	disease
Sohee Kim	female	41	schizophrenia
Jiwoo Han	male	23	schizophrenia
Jinhee ji	male	37	schizophrenia
hankeul Choi	male	47	schizophrenia

2.3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자들은 낮병원을 이용하는 선정된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음을 설명 후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을 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낮병원 이용 전에 자신의 이야기와 낮병원 이용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이 참여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 후 기록했다. 자료 수집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3회 이상의 심층면담과 낮병원 퇴원 후 추가 외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면담과 동시에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며 연구 참여자들의 낮병원 이용경험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대조하며 비교 분석을 하였다. 낮병원 이용경험에 대한 의미 있는 문장과 표현을 추출하여 의미 있는 진술을 해석하고 다시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며 공통적인 주제를 찾고 연구 텍스트로 구성했다.

2.4 연구의 진실성

연구가 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자들과 연구 참여자들 간의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을 통한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정신보건 실천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진지한 만남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와 연구내용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반복적으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연구의 분석 결과와 내용이 연구자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확인 작업을 거치고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들의 해석과 연구의 객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강의하고 질적연구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 전공 교수 1인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3인에게 지속적 협의와 수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은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고 주관적 해석을 줄여나가고 진실성을 확보했다.

3. 낮병원 참여자의 경험 이야기

3.1 '김소희'(가명)의 이야기

'김소희'는 현재 모텔 청소 업무 정규직을 하고 있다. 그녀의 어머니는 중학교 시절부터 도박을 했고 아버지는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 갈등이 심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화가 났을 때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부모가 싸울 때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틀며 마음을 안정시켰다. 대학 입학 후 자취하며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종교 활동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때 종교 망상과 피해사고가 심하고 충동적 성향으로 인해 응급환자로 분류되어 부모님이 강제 입원 시켜 정신과병동 입원치료를 받았다.

3.1.1 파도 속에 홀로 남겨진 작은 아이

'김소희'는 첫 입원 이후 체중이 20kg이 늘어 많은 충격을 받았다. 20대 젊은 여성에서 급격한 체중의 증가는 그녀에게 자신감 저하를 가져왔다. 그녀는 살을 빼기 위해 음식을 씹고 뱉는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체중을 빼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금 체중이 줄면 다시 체중이 급세 늘어나 좌절을 경험했다.

"내가 정신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퇴원 후 체중까지 늘어서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이 한심하고..... 너무 우울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또래 아이들은 다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나는 살이 쪼서 꾸미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신과 약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건가 싶어서 약을 몇 번 끊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몇 번씩 입 퇴원을 반복하기도 했죠.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정신질환 발병과 입원 병동생활 부작용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게 된 그녀는 우울감과 절망감을 경험했다. 그녀는 우울감과 절망감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학교에 복학하고 대학을 졸업한다. 병과 싸우며 항상 외로움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느꼈던 그녀는 사회에 나와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졸업 이 후 어린이집, 학습지교사, 병원 행정보조, 건설현장 유도원, 콜센터 직원, 학원 안내데스크 등 다양한 곳에 취업을 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신질환 발병 후 불어난 20kg이상의 체중과 조현병은 그녀의 자존감을 괴롭히고 있었다.

“살져서 학교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자퇴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 열심히 다녀서 졸업했어요. 체중은 너무 우울 했지만.....그 이후에 포기했어요. 면접은 나쁘지 않게 봐서 일을 들어가는 여러 군데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사람들 이랑 서운한 일이 생기면 내가 살이 찌고 못생겨서 나한테만 더 그러는 것 같고..... 나를 모함하고 해치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다보니 사람들이랑 갈등이 심해져서 힘들어서 퇴사하고 그랬죠. 정말 힘들었어요.”

3.1.2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김소희'는 다시 일을 하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그녀는 구직에 대한 열정만큼 자존감은 낮아져 있었다. 증상과 대인관계로 인해 직업을 유지해 나갈 자신이 없었고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받기 위해 낮병원 활동을 권유받아 이용하게 되었다. 그녀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없었지만 어떤 것이라도 붙잡고 노력해보고 싶었다.

“낮병원 이용결정을 하고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했어요. 그냥..... 지금 혼자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예전에는 그만두더라도 일을 구할 자신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자신도 없고..... 나한테 큰 도움이 되던 안 되던 낮병원 잘 다니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해보자고 생각했죠.”

그녀는 낮병원 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갔다. 낮병원 초기에 그녀는 살이 너무

찌서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회원들에게 상처를 받을까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경제활동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도 높아 힘들어 했다. 그녀는 부정적 감정과 생각이 들 때마다 용기를 갖고 이겨냈고 다른 낮병원 회원들을 돕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출근할 때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것과는 다르게 직원들도 회원들도 너무 잘해줘서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낮병원에 다니면서 김00이를 도와주면서 저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좋은 기분이고..... 원래 서비스업종을 많이 해서 사람 도와주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금방 그만뒀서 그렇지..... 낮병원의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일과 속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저도 많이 치유 받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아요.”

3.1.3 다시 세상 속으로

'김소희'는 낮병원 이용경험을 통해 증상과 대인관계 문제로 힘들어했던 자신을 다시 한 번 이겨내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가 문제로 생각했던 장기간 직업 유지를 위해 차근차근 해나가기로 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 함께 업체에 가서 상의하고 짧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일을 늘려나가고 낮병원 이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르게 마음의 힘을 갖고 새롭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려 노력하고 있었다.

“일을 하면서 장시간 오래하면 스트레스로 증상이 심해지고 갈등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단기로 조금씩 늘려나가기로 한 부분은 저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청소업무는 처음 해봤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하니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만족해요. 이제는 오래 지속적으로 한번 해봐야죠. 잘될 것 같은 긍정적인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일을 점차 늘려나갔고 낮병원은 줄여나갔다. 낮병원에서 낮병원 식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낮병원 구성원들 모두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했다. 낮병원 식구들이 그녀의 어려움을 함께 상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과정 속에 그녀는 힘을 얻었고 낮병원을 떠나 다시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제가 조금 힘들어하거나 누가 일을 할 때 싫은 소리를 해도..... 제가 증상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웃으면서 편하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 덜 뾰족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고. 나중에 힘들면 제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힘이나요. 다음에 월급 타서는 낮병원 회원들한테 피자를 사주고 싶어요.”

3.2 ‘한지우’(가명)의 이야기

“한지우’는 현재 영어학원에 다니며 대학교 복학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선천성 소아마비, 산후 우울증이 심해져 외할머니가 주로 그를 양육했다. 유치원 때부터 또래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왕따를 당했으며 중학교 시절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다. 명문고를 다녔던 그는 가족에게 폭력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명문고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가족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집이 제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감이 들면 집으로 갔고 학교를 그만둔 시기부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고 학창시절 친구들을 만날 것 같아 두려워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보냈다. ‘한지우’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입원 치료를 권하게 되어 정신과병동 입원치료를 받았다.

3.2.1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

‘한지우’는 주로 대화하는 사람이 외할머니 밖에 없을 정도로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퇴원 후에도 온라인 세상이 자신을 반겨줄 유일한 세상이라고 믿으며 온라인 게임에 몰두했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 우정을 쌓아갔지만 온라인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현실과는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중퇴에 정신병원도 갔다 오고……. 집 안이 편하고 온라인 게임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길드도 만들고 같이 사냥도 하고 공성전도 하고 온라인 게임 세상이 차라리 현실 세상이었으면……. 그때는 그곳이 저에게 있어서 더 현실이었는데도 모르죠.”

그는 온라인 게임에 집중할수록 공허함은 더 커져갔다. 게임 안에서의 친구들은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고 온라인 게임 안에서는 그가 많은 상처를 통해 두려워했지만 간절히 원했던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가족들은 그가 현실세계로 돌아오길 원했고 그는 가족의 권유를 받아들여 검정고시와 운전면허를 준비하게 된

다. 학습 능력이 뛰어났던 그는 검정고시와 운전면허를 합격하고 **대학교 영문학과에 진학하는 성공경험을 하게 되었다.

“온라인 게임을 그만두지는 못했어요. 공허함이 들긴 했지만 거기서 함께 하는 친구들이 제 유일한 친구들이었으니까…….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입학을 했는데 가족들도 좋아하고 해서 1학기는 꼭 참고 열심히 다녔는데. 2학기 때는 수업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다가 실수를……. 그 이후에 사람들만 만나면 부끄럽고 두렵고 학교를 조금씩 안 나가게 되다가 전부F 처리 되고 지금은 휴학한 상태예요. 학교를 휴학하고 나서 난 결국 또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3.2.2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한지우’는 어머니와는 거리감이 있고 외할머니와는 가까웠지만 힘들었던 시절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외할머니와 함께 와서 낮병원을 등록하여 이용을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지만 온라인게임 세상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용기를 냈다. 용기를 냈지만 초기 이용과정에서는 그에게 어려움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는 다가가기 힘들어요. 지금은 살을 많이 빼긴 했지만 아직도 뚱뚱하고 못생기고 대학교도 안다니고……. 다른 사람들 만나기 힘들어요. 아까 프로그램 발표할 때도 저는 말주변이 없고 말을 잘 못해서 걱정됐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는 어려움을 표현하기는 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 학창시절 그를 괴롭히던 친구들의 SNS를 보게 되었는데 자신보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지만 자신도 변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는 낮병원에서 지원업무로도왔는데 식사 배식지원과 물 컵 관리를 자발적으로 했다. 다른 낮병원 회원의 물 컵을 깎을 때 두려워했지만 비난 받지 않고 물 컵 관리에 격려를 받아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는 작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의 기쁨을 표현했다. 낮병원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안정되었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 두렵고 저에게 집중되는 상황

이오면 도망가고 싶었는데...... 낮병원 다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꼭 참았던 것 같아요. 저를 때리고 못살게 굴던 친구들이 저보다 잘사는 것을 보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지만...... 저도 그놈들 보다 더 잘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살면서 항상 비난만 받아왔는데 낮병원 회원들도 직원들도 저를 지지해주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복지사님이 낮병원 식구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서 좋아요.”

3.2.3 두려움을 깨고 전진

‘한지우’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깨기 위해 담당 사회복지사와 모바일 게임 오프라인 모임도 함께 참여했다. 하나씩 자신의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깨나가며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조금씩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포켓몬고를 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온라인 게임을 접고 간단하게 돌아다니면서 할 만한 게임을 찾다보니 시작했는데...... 오프라인 레이드 모임이 있는 건 몰랐어요. 아마 알아서도 혼자 참여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함께 참여하니 뭔가 더 재미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좋았어요.”

그는 이후 오프라인 모임에 혼자 참여하게 되었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통닭도 먹으러 가기도 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조금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낮병원에서 회원들과의 대인관계에서도 깊이 있는 대인관계가 일어났다. 그는 마음의 힘을 얻고 휴학한 학교를 다시 복학해서 다니기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며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을 F를 맞고 휴학을 할 때...... 제가 학교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학교는 끝났구나...... 자포자기했던 심정이었는데 지금은 영어 학원을 다니며 복학을 준비하고 있으니 참 모를 일이에요. 사실 다시 도망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다시 도망치더라도 또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3.3 ‘지진희’(가명)의 이야기

‘지진희’는 현재 낮병원에 다니며 낮병원 회원대표를 맡아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외가에 1년 보내지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이 뛰어나고 모범생이었지만 어머니와의 갈등은 지

속되었다. 대학 입학 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다 대학교 3학년 무렵 기숙사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버티다 탈진해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아 정신과로 전원 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

3.3.1 지구인과 함께 사는 화성인

발병과 입원치료 이후 ‘지진희’의 삶은 변했다. 조현병 환자로의 세 달간의 입원치료는 그에게 많은 위축을 가져왔는데 학교에 다시 복학했지만 사람들과 예전처럼 지내기는 어려웠다. 정신병으로 입원했다는 이야기가 과에 퍼져서 사람들이 알기도 했고 사람들의 색안경에 대인관계가 더 어렵고 관계 맺기가 힘들었다.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죠. 복학하고 과 선배들을 만났는데...... 소문이 벌써 났더라고요. 말 걸면 사람들이 친절할데 거리감을 두면서 피하는 느낌이 드니 처음에는 내 생각이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과에 제 소문은 다 났고...... 정신병원 갔다 왔으니 조심하라고.”

그는 힘들 때마다 가족에게 이야기해서 개방병동에 스스로 입원하여 마음을 추스르고 대학을 졸업했다. 문제는 졸업 이후였다. 졸업 이후 그는 자신이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에 취업 연애 등에 대한 사회적 기회가 박탈당하는 경험을 했다. 이후 그 분노감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표출되었다. 그는 집에서는 어머니에게 폭군으로 밖에서는 극도로 친절하고 예절바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말 이 악물고 꼭 참고 졸업했는데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회가 차단된다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잘 안 풀리니까 어머니한테 화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엄하게 꾸짖기만 하고...... 날 어릴 때 외가에 버렸다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화가 났습니다.”

3.3.2 나만 화성인은 아니다

‘지진희’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고 그 문제로 인해 입 퇴원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의 어머니와의 분리가 필요했고, 그때 어머니의 지인이 소개하여 낮병원을 처음 오게 되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자신과 안 맞으면 그만된다는 생각에 낮병원을 이용하게 되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출 퇴근하면서 약도 받아먹고 프로그램도 참여하면서 지내는 곳으로 들었는데.....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들만 모아놔서 뭐가 좋겠냐 싶다가도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오게 됐죠. 잘 다니면 용돈도 조금 올려준다고 하기도 했고.”

그는 낮병원 생활을 하며 자신보다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다른 회원들을 보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직원들과 회원들에게 과도한 예의를 보이며 겸손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낮병원 회원들 중 일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려움을 표현했으나 다른 일부는 개의치 않고 그에게 편하게 다가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갔다.

“발병 이후 대학 다닐 때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하며 저를 무시했던 기억이 아직 선명하죠.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마음을 주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거리를 두려 해도 낮병원 회원들이 참 순수하게 계속 다가오는데 계속 거리를 두기가 힘들더라고요.”

3.3.3 조금은 지구인과 마음에 문을 열어도

그는 조현병으로 인해 삶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했고 그 분노감을 그의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행동으로 드러냈다. 낮병원 이용을 통해 그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했다. 그는 가족과의 상의를 통해 그가 생각했던 조현병으로 인해 잃어버린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노감과 갈등이 줄어드는 변화가 생겼다.

“조현병 때문에 이성도 못 만나보고 길가다 커플만 보면 화가 났는데 결혼 정보업체에 등록해서 소개를 받고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병으로 인해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는데.....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조현병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배제 당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만 마음의 힘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시도와 활동을 통해 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갔다.

“어머니가 막 좋거나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예전처럼 미운생각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천천히 다시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잘 안 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구요. 낮병원을 다니면서 마음이 더 안정되면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3.4 ‘최한결’(가명)의 이야기

‘최한결’은 현재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며 글쓰기 수업을 받고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는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고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또래와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그는 국문과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기계과에 진학하게 된다. 대학에서 만나 2년간 사귀던 여자 친구와도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고 사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그에게 아버지와 같은 공무원이 되길 원했다. 오랜 공무원 시험 낙방 끝에 고립된 생활을 하고 괴로워하다 발병 후 입원 치료를 받았다.

3.4.1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최한결’은 퇴원 후에 글 쓰는 일을 해보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아버지의 지인들이 아는 회사에 입사하여 원치 않는 일을 하며 살아왔다. 아버지의 입사하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는 엄포는 그의 마음을 짓눌렀고 조현병 환자라는 자신의 처한 현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는 경험을 했다.

“제가 공부만 하다 미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글 쓰는 일을 해보거나 책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당장 취업이 쉬운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생각해서 해주시는데 거절하기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는 장남이라는 책임감과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살았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있어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모든 선택을 맡긴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저한테 장남이라는 이유로 항상 많은 요구를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반대를 하셨고 장남이라는 이유로..... 차라리 그때 아버지에게 확실하게 표현하고 제 갈길 갔으면 제 삶이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원망스러운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마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3.4.2 너무 늦은 시작은 없다

‘최한결’은 낮병원을 이용 하며 다시 하나씩 해나갔다.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며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파악해 나갔고 받고 싶거나 스스로 하고 싶은 교육을 찾아 낮병원 식구들과 함께 논의하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현실감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며 해답을 찾아나갔다.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는데 출판사나 책과 관련된 업무는 나이드 많은데 관련 경력이 없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일을 아무 경력도 없이 당장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아직 몸 건강하니까 택배 상하차 업무 같은 몸 쓰는 일을 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현장 일을 하더라도 지금은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나씩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꼈다. 선택만을 강요받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선택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이 작은 선택 과정도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그는 낮병원 구성원들의 지지와 믿음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그가 원하는 일을 계획해 나가고 방향성을 잡아나가며 구체화 해나갔다.

“너무 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리스타 교육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기도 하고 찾아보니 지적장애인부터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배우고 교육과정도 있다고 하던데..... 꼭 카페에 취업을 안 하더라도 배워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4.3 나의 선택이 정답이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 여자친구, 대학 전공, 졸업 후 직장 무엇 하나 스스로 생각하고 정하고 선택하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이 원해서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살아가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정답이고 최고의 선택이다.

“지금 이 나이에 바리스타를 배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글쓰기 수업을 가도 나보다 더 어린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내 인생의 선택을 떠넘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바리스타 수업과 글쓰기 교실을 다니며 행복감을 느끼고 살아갔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선택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능력이 뛰어난 그는 빠른 습득을 해나가고 있고 바리스타 수업 기관에서 바리스타 취득 이 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하는 매장에 매니저로 취업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자신이 원한 일을 시작한 그의 선택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자신감을 만들어줬다.

“관심 있고 재미있으니 지루하지 않고 일이 빨리 늘고 좋습니다. 이번에 바리스타 교육을 잘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글쓰기 공부도 열심히 해서 책을 써보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힘들겠죠? 나중에 자격증 따서 일하면 커피 마시러 꼭 오세요. 자격증을 따면 낮병원에 놀러가서 낮병원 식구들에게 차 한 잔씩 만들어 주고 싶어요. 요즘 참 즐겁습니다.”

4. 낮병원 경험의 의미

4.1 세상과 끊어진 줄을 다시 묶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정신질환이 가진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위축되고 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환경에 노출된다. 정신과 환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아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로의 진입이 어렵다. 연구 참여자들은 낮병원 이용과정에서 사회적 편견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의 새로운 진입을 도전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낮병원 활동이 작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되는 하나의 돌파구였다.

“밖에 나가기 힘들고 집에만 주로 있던 저한테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한지우 면담 中-

사회로의 진입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경쟁과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을 이겨내며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성장과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로 진입할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계기를 마련해 끊어진 줄을 다시 이어 줄 연결고리가 필요했다. 그들의 사회로의 복귀는 자신의 병에 대한 받아들임과 변화의 시작이었다.

“지금은 지지취업을 해서 일을 하며 제 병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나중에 더 힘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혼자 취업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김소희 면담 중-

4.2 힘이 되는 마음의 안식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거나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연구 참여자들은 차이는 있었지만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다. 낮병원 이용을 통해 다른 이용 환자와 함께 어울려 생활하며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극복해 나갔다. 그 과정 속에서 낮병원을 자신의 지지체계에 만들어냈다. 낮병원 이용 과정을 통해 친구와 가족을 느꼈으며 낮병원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증상관리와 사회재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집에서 심심하고 외할머니와 주로 이야기를 하고 지냈는데 매일 나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참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함께 프로그램도 하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한지우 면담 중-

“처음에는 불편했던 환자들도 있었는데 자주 만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가족 같은 느낌이죠. 오면 마음도 편해지고.” -최한결 면담 중-

“내가 힘들어도 지지받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힘이 돼요.”-김소희 면담 중-

4.3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다.

정신과 환자들은 정신질환 발병 이후 혼란함과 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해 삶의 계획이 변화 되거나 고립된 삶을 경험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정신질환이 주는 불안으로 인해 계획적인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로 인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도 정신질환과 싸우며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전쟁 같은 삶을 살았으나 좌절하고 절망했다. 그들은 낮병원 이용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지지와 힘을 받으며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나가며 삶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전에는 누구도 그 이상을 요구하지도 해보라고 권유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하다가 좌절하고... 지금은 저를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함께 상담하고 차근차근 다른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어요.”-김소희 면담 중-

“제가 다시 세상에 나와 하고 싶은 일을 막연하게 생각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셔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교육도 잘 받아서 새롭게 일도 시작하고 원했던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고 잘 해나가겠습니다.” -최한결 면담 중-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낮병원 이용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정신과 환자들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살펴본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경험의 의미는 ‘세상과 끊어진 줄을 다시 묶다’, ‘힘이 되는 마음의 안식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다’ 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질환발병 이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으나 낮병원 이용과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극복해 나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며 정신과 환자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킬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신과 환자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적 편견의 벽을 깨고 극복해 나가며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체계나 사회체계 내에서 지지체계가 부족했으나 낮병원을 지지자원으로 활용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낮병원을 함께 이용하는 동료 환자와 낮병원의 지지체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는 정신과 환자들이 지지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시설과 자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신과 환자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과 이용시설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지체계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삶의 선택에서 스스로 삶을 선택하며 성장해나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낮병원 이용경험을 통해 낮병원 동료 환자들을 돕고 지지를 받는 상호 과정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인식하였다. 낮병원 이용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과 주체성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은 정신과 환자들이 주체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과 환자들이 다른 환자와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신과 환자의 낮병원 이용 경험을 환자 당사자의 관점에서 탐색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동일한 낮병원을 이용하는 소수의 인원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고 낮병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정신과 환자 중에 조현병 환자로서만 연구가 이루어진 점은 한계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첫째, 향후 정신과 낮병원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보건 관련 시설 경험이 정신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간재활 사업의 확대와 사회복지시설과 정신과 낮병원 증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 [1] C. H. Kim. (2017). A Study of Contents and Resolutions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Association Public Land Law Review*, 80, 303-331.
- [2]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18). *Mental Health Welfare Act, Law no.15907*, Seoul :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3] J. H. Lee. (2018. 5. 24). Mental Hospital Compulsory Hospitalization Reduced 42% in One Year. *Hankook economy*.
- [4] G. D. Park. (2019. 8. 11). Hospitalization tricky. Psychiatric hospital beds are reduced. *Chosun Ilbo*.
- [5] W. G. hong. (2019. 8. 20). Why do Korea have many psychiatric beds?. *Doctor's News*.
- [6] H. M. Sung & S. Y. Moon. (2015). A Study on the Deinstitutionalization and Community Mental Health in Mental Health Ac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1(1), 303-325.
DOI : 10.18859/SSRR.2015.02.31.1.303
- [7] M. M. Choi, J. Y. Kwon & G. D. Kim. (2016). An Exploration on the Applicative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Fiel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4), 225-246.
DOI : 10.20970/KASW.2016.68.4.010
- [8] H. J. Kwon. (2019. 4. 23). Jinju Apartment Fire and Murder suspect, Symptoms of schizophrenia appear for a long time. *dtoday*.
- [9] M. H. Kim. (2019. 6. 12). To establish dormitory for mentally disabled person... Local residents who say "I will burn.". *Hankook Ilbo*.
- [10] H. S. Jang. (2010). *The structural causes and perpetuating factors affecting long-term hospitalization of the mentally ill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Ulsan University, Ulsan.
- [11] J. J. Lee. (2007). *The Study on Quality of Life, The family burden of the Mentally Disabled in Social Rehabilitation Facilities*.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 [12] H. H. Seo. (1999).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chronical mentally disabled people using the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Bucheon.
- [13] O. J. Jang, B. D. Lee & Y. I. Chung. (2015). A Study on Factors Related to Long-term Hospitalization in Patients with Chronic Schizophrenia.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554(1), 76-83.
DOI : 10.4306/JKNPA.2015.54.1.76
- [14] K. Z. You & K. H. Lee. (2012). Job Satisfaction of Psychiatric and 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Korean J Occup Health Nurs*, 21(2), 108-115.
DOI : 10.5807/KJOHN.2012.21.2.108
- [15] J. N. Oh.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eamwork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Mental Health Center*.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16] J. H. Park & H. S. Park. (2017) Hope Enhancement Program for Increased Hope,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for Mentally Ill Persons in Day Hospital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6(3), 260-11.
DOI : 10.12934/JKPMHN.2017.26.3.260
- [17] J. U. Seo. (2018). *The Effects of a Recovery Enhancement Program on Recovery Attitude, Drug Attitude, and Quality of Life for Mentally Ill Persons in Day Hospital*. master's thesis.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 [18] J. H. Choi. (2013). *Prospective study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day hospital care to improve treatment adherence of psychiatric outpatient*.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19] D. J. clandinin. & F. M. Connelly.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 Jossey-Bass.
- [20] Y. M. Ahn. (2008). *A Narrative Inquiry into Two Elderly Men's Search for Meaning of Life and Death*.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1] E. J. Suh (2019). 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Narrative of Implementing the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5(2), 29-53.
DOI : 10.30940/JQI.2019.5.2.29

엄 광 진(Kwang-Jin Eom)

[장학원]



- 2020년 1월 현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8년 3월 ~ 현재 : 해원정신과 낮병원 하모니센터 센터장
- 2019년 12월 ~ 현재 : 공동생활가정 다운집 운영위원
- 관심분야 : 정신건강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질적 연구

· E-Mail : suntime85@naver.com

맹 해 영(Hae-Young Maeng)

[장학원]



- 2020년 1월 현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08년 ~ 2019년 : 진병원 사회복지과 과장
- 2020년 1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 관심분야 : 정신의료, 상담, 심리극

· E-Mail : mheay@hanmail.net

김 정 유(Jung-Yoo Kim)

[장학원]



- 2020년 1월 현재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 관심분야 : 정신건강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자살예방

· E-Mail : corea-yes@nate.com